

# [워크숍] 확산탄금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2012년 7월 4일 녹색교육센터



- 확산탄에 관한 한국정부 정책에 대해 (여옥) 2
- 확산탄 기업 투자 문제 (염창근) 4
- 금지운동 사례 : 뉴질랜드 ANZCMC (가람) 9
- 금지운동 사례 : 벨기에, '내 돈,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캠페인 (오리) 11

# 확산탄에 관한 한국정부 정책에 대해

여욱

## 1. 확산탄 관련 한국정부의 입장

### 특수한 안보상황

-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상 우리의 안보 여건에 변화가 없는 한 확산탄의 전면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확산탄금지협약CCM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

“한국은 직면한 독특한 안보환경 때문에 현재 자기방어를 위한 확산탄을 보유하고 있다”

### 기존의 협약 CCW로도 충분

- 한국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당사국, 2008년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 ERW) 비준했음. 한국 정부는 CCW를 지지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

“우리는 현존하는 국제인도법의 보다 엄격한 적용과 이행과 집행이 확산탄에 대한 관심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2008년 CCW GGE 회의에서 발언)

- CCW는 무기금지를 위한 본래의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협약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음. 특히 제5의정서에서조차 확산탄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ERW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만을 되풀이할 뿐. 심지어 최근 제6의정서 논의에서는 일부 확산탄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강대국의 움직임이 있었음.

### 기술의 문제

- 확산탄의 문제는 불발탄의 문제이며, 기술적인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최신식 확산탄은 과거 확산탄과 달리 불발탄에 의한 민간인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

“현재 확산탄 생산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자기파괴 구조를 갖추고 있다”

“확산탄과 관련된 진짜 문제는 무책임하며 무차별적인 확산탄 사용에 있는 것이지 무기체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신형 확산탄을 확보하는 것과 구형 확산탄의 폐기는 별개 문제이며 현재 국방부는 별도 폐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

### 미국과의 관계

- 한국은 2008년에 자기파괴기능이 있고 1% 이하의 불발률을 가진 확산탄만을 획득할 것이라는 지침(2008년 11월 13일 CCW 당사국회의 발언)

- 미국: 2007년 12월 미 의회는 99% 이상의 검사 신뢰도가 없는 확산탄을 이전 중지하도록 하고, 명확한 군사 목표물로 지정된 곳을 공격할 때만 사용하도록 함

- CCW 제6의정서 확산탄 관련 논의에서도 미국의 입장 지지

### 실전배치와 훈련

- 연평도 사태 이후 서해5도에 전면 배치, MLRS 훈련에 대한 홍보
- 국방예산 중 확산탄 관련 예산 : 2010년, 2011년 700~800억 정도, 올해 2030억(좀더 확인 필요)

## 2. 사용, 생산, 이전, 비축

- 실제 전쟁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고, 민간인에게는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언, 하지만 훈련에서는 사용하고 있음
- MLRS에 들어가는 DPICM 생산을 위한 미국과의 라이선스 계약, 한화와 풍산이 생산
- 파키스탄에 수출한 것으로 추정, 공동생산을 위한 면허생산 계약체결
- 기존의 구형 확산탄 비축분에 대한 폐기계획은 없고, 신형 확산탄은 계속 구매하고 있음
-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확산탄 수입

## 3. 최근 구매하는 최신 확산탄 관련 상황

- 한국이 미국에 구매 요청한 무기는 CBU-105 WCMD(바람수정 확산탄) 367발을 포함, 훈련용 CATM 미사일 28발, DATM 미사일 7발과 관련 장비 등 총 3억 2500만달러(약 3840억)
- 텍스트론 시스템즈의 CBU-105 한발 당 가격은 36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원이 넘음
- CBU-105에는 스킵트 탄두 4개가 포함된 BLU-108 소폭탄이 각 10발 들어감, CBU-105 한 발에 40개의 소폭탄이 투하되는 형태. 한국 공군의 F-15K급 전투기에는 최대 15발까지 탑재가능, B-1B 폭격기에는 최대 30발까지 탑재가능
- 미군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과 2003년 이라크에서 CBU-105 확산탄을 사용했음.
- 2001년 미국이 한국에 CBU-105를 제공한 적이 있음.
- 2010년 4월, FA-50에 장착할 목적으로 바람수정 확산탄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방사청이 언급한 바 있음. (2010년부터 구매했을 가능성)
- 최신형 스마트 확산탄으로 기존 확산탄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 2006년 레비논 폭격 때 확인되었듯 실험에서 1%가 나온다고 해도 실전상황에서는 10%가 넘음. 그리고 수백만발이 뿌려지는 상황에서 1%의 불발탄도 엄청난 숫자
- 아무리 기술발전이 된다고 해도 무차별적인 폭력을 퍼붓는 확산탄 자체의 비인도성을 해결하지는 못함.
- 미국을 중심으로 '불발률 1% 미만의 확산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CCW 제6의정서가 그 대표적인 예. 세계의 다수 국가가 동의한 높은 수준의 협약이 이미 제정되었는데, 낮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협약을 채택하려 했던 것은 소수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 한국도 여기 편승하고 있음.
- CCM에서는 무차별성과 불발탄의 위험을 기준으로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만 규제에서 제외. 그 기준에 맞는 기준은 단 3개뿐.

# 확산탄 기업 투자 문제

염창근

\* 네트워크 플란데런(벨기에, <http://www.netwerkvlaanderen.be>)과 IKV 팩스 크리스티(네덜란드, <http://www.ikvpaxchristi.nl>)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Worldwide Investments in Cluster Munitions - a shared responsibility(확산탄에 대한 세계적 투자 - 공동 책임)” 2011년판에서 한국과 관련한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보고서는 2009년에 발간되어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두 단체의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 1. 한국의 확산탄 생산 기업

- 확산탄을 생산하는 한국의 기업은 한화와 풍산 2곳입니다. 세계 8대 확산탄 생산 기업을 선정하는 수치의 전당(Hall of Shame)에는 두 기업 모두 이름이 올라가 있음. 한화(2위)와 풍산(5위)은 세계에서 주요 확산탄 생산 기업임.

### 한화

- 1952년 화약류 생산 기업(한국화약주식회사)으로 출발한 한화는 화약 산업 생산 및 건설, 무역, 기계, 제약, 금융, 레저 등을 아우르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음. 한화는 1974년에 공식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군수품을 전문으로 생산. 확산탄은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MLRS)과 2.75인치 다목적소폭탄(MPSM)을 생산. 이는 2007년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에 답변한 확산탄 제조에 관한 한화의 서면을 포함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한화 홈페이지에 상품으로 소개함.

- 노르웨이는 2008년 1월에 한화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음.

### 풍산

- 방위산업체인 풍산은 탄약을 생산. 확산탄은 DP-ICM TP/K308과 DP-ICM K310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155mm 포격용 확산탄을 생산. 현재 풍산 홈페이지에는 K310은 더 이상 생산품 목록에 보이지 않지만 K308은 여전히 광고되어 있음. 'K308은 155mm 포격용 포탄으로, 확산탄인 작은 폭발성 소폭탄인 소형 폭탄 88개가 들어있다고 설명. 또한 파키스탄과 공동생산 및 수출한 바 있음.

- 노르웨이는 2006년 12월에 풍산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음.

## 2.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기관들

- 두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연금기금은 총 49개이며 그중 한국의 기관은 26개임. 한화에는 20개, 풍산에는 18개 국내 기관이 투자하고 있음.

한화 투자기관 목록

국내	해외
국민연금공단	Acadian Asset Management (미국)
국민은행	AXA (프랑스)
대우증권	BlackRock (미국)
동부증권	Credit Suisse (스위스)
동양증권	Dimensional Fund Advisors (미국)
미이다스에셋자산운용	Fidelity Group (미국)
메리츠증권	Goldman Sachs (미국)
미래에셋증권	Grantham Mayo Van Otterloo & Co (미국)
삼성그룹	Mellon Capital Management (미국)
신한은행	Prudential (영국)
우리투자증권	State Street (미국)
유진투자증권	Vanguard Group (미국)
천안북일교육재단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한양증권	
한화증권	
HI투자증권	
HMC투자증권	
SK증권	

#### 풍산 투자기관 목록

국내	해외
부국증권	Allianz (독일)
국민연금공단	AXA (프랑스)
국민은행	Baring Asset Management (영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Batterymarch Financial Management (미국)
대신그룹	BNP Paribas (프랑스)
동양증권	Dimensional Fund Advisors (미국)
미래에셋증권	DJE Kapital (독일)
삼성그룹	Franklin Templeton (미국)
신영증권	Helaba (독일)
신한은행	Mellon Capital Management (미국)
우리투자증권	Nomura (일본)
한국산업은행	State Street (미국)
한국수출입은행	UBS (스위스)
한국투자금융지주	Vanguard Group (미국)
한화증권	Wells Fargo Bank (미국)
HI투자증권	Yuanta Financial Holdings (타이완)
KTB자산운용	
SK증권	

국민연금공단(자산관리)

- 한화 주식의 7.14%를 보유 및 운용. 미화 219,800,000달러(약 2420억 원) 상당.
- 풍산 주식의 6.03%를 보유 및 운용. 미화 71,800,000달러(약 792억 원) 상당.

국민은행(투자은행, 자산관리) : 한화의 채권을 인수해 온 주요 은행. 풍산 주식의 0.16%를 보유 및 운용

신한은행(투자은행) : 한화와 풍산의 채권 인수.

우리투자증권(대출, 투자은행) : 한화와 풍산의 채권 인수, 신용편의 제공.

한국산업은행(대출) : 한화와 풍산의 채권 인수, 풍산의 신용편의 제공.

한국수출입은행(대출) : 한화의 채권 인수, 풍산에 신용편의 제공.

한국투자금융지주(투자은행, 자산관리) : 한화의 채권 인수, 한화와 풍산의 주식 보유 및 운용.

한화증권(투자은행, 자산관리) : 한화의 채권 인수, 한화와 풍산의 주식 보유 및 운용.

SK증권(투자은행) : 풍산과 한화의 채권 인수.

삼성그룹(투자은행, 자산관리) : 삼성증권, 삼성투자신탁운용이 한화와 풍산의 채권 인수, 주식 보유 및 운용.

천안북일교육재단(자산관리) : 한화 주식의 1.83%를 보유 및 운용. 미화 56,300,000달러(약 620억 원) 상당.

대우증권(투자은행), 동부증권(투자은행), 한양증권(투자은행), 마이디스에셋자산운용(자산관리), 메리츠증권(투자은행), 미래에셋증권(투자은행, 자산관리), HI투자증권(투자은행, 자산관리), HMC투자은행(투자은행)

### 3. 기업 투자 문제에 대응한 사례들

- 벨기에에서 확산탄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NGO 네트워크 플란데런(NGO Network Vlaanderen)은 확산탄 산업 투자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몇몇 금융기관의 변화와 이후 법제 개혁을 불러왔음. 2006년 12월에 벨기에 상원의원인 필립 마호(Philippe Mahoux)가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혹은 보유에 대한 직간접적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확산탄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법안은 2007년 3월에 통과). 이로 인해 벨기에에는 확산탄 생산 회사에 대한 투자를 범죄행위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됨.

- 세계에서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킨 두 번째 나라는 아일랜드. 확산탄금지협약 실행에 관한 아일랜드의 법은 생산자에게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함.
- 2008년 12월 룩셈부르크는 확산탄이나 폭발성 소폭탄에 대한 개인과 사업체의 “고의적인” 투자를 금지하는 확산탄금지협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공표. 협약의 2조와 3조에 따라 “고의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 징역 5년에서 10년형과 벌금 2만 5000유로에서 100만 유로에 처하거나 이들 중 하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4년에는 노르웨이 재정경제부가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의 윤리지침 아래 투자가 제외(금지)되어 있는 비인도적 무기 범주에 확산탄을 추가하기로 결정. 2005년 6월에는 확산탄 생산에 관여한 8개의 외국 기업들이 연금기금의 투자에서 제외되었음(Alliant Techsystem Inc., EADS Co., EADS 자회사 BV, General Dynamics Corporation, L3 Communications Holdings Inc., Lockheed Martin Corp., Raytheon Co., Thales SA). 이후 2006년과 2008년에도 또 다른 관련 사업체들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2007년 3월 18일, 네덜란드에서는 주요 연금기금이 지뢰와 확산탄 생산에 관여한 기업들에 투자한 것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The Clusterbomb Feeling”이 방영되었고 시청자들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음. 이로 인해 많은 연금기금들이 확산탄 생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 2007년 7월에는 프랑스 보험회사인 악사(Axa)그룹이 확산탄 생산에 관여된 회사들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악사는 “아직 확산탄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사그룹은 특정 종류의 확산탄 금지에 동의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힘.
- 2008년 3월 3일, 아일랜드 국가연금준비기금(NPFI)은 확산탄 생산에 관여한 6개의 세계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 2008년 4월 4일 뉴질랜드 퇴직연금기금(NZ)도 투자 철회를 발표.
- 2008년 6월 1일, 스웨덴 연금기금 AP 7도 확산탄 생산에 관여한 회사들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발표. 스웨덴 정부 소유의 7개 연금기금 중 하나인 AP 7은 900억 크로나(약 14조 8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이어서 2008년 9월 다른 4개의 연금기금 역시 보유 주식을 매도했음.
- 2011년 8월까지 최소 19개 국가가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는 협약에서의 원조 금지에 포함된다고 말했음.
- 5개 국가(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이슬란드, 이탈리아)는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국내법으로 제정했으며, 이들 나라의 연금기금은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금지했음.
- 12개 국가(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의 금융기관은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함께하고 있음.

#### 4. 투자 문제에 대한 입장

- 확산탄금지협약의 채택 협상 과정에서 확산탄 원조 금지 부분(영토 통과, 외국 비축, 공동군사작전과 상호운용,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은 가장 큰 이견이 있었던 사안 중 하나였음.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 확산탄금지협약 1조 1항 (c) : “당사국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협약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가담하도록 누구에게도 원조, 장려,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확산탄 원조 금지 조항은 확산탄 생산자들에 대한 직간접적 투자도 금지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확산탄 원조를 금지한다는 것은 투자 금지도 포함한다).

- 모든 무기가 그러하듯, 확산탄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생산 기업(군수산업체 혹은 방위산업체). 한화와 풍산은 무기 생산으로 주가 상승 및 독점적 이익(세금으로 개발과 생산 확실히 수익 기반)을 누려왔음. 동시에 이에 투자한 기관들 역시 함께 이익을 챙겨온 것임.



[사례 연구]

## 뉴질랜드 Aotearoa New Zealand Cluster Munition Coalition (ANZCMC)

가람

### 1. 웰링턴을 ‘폭격’하라(“bombing” stunt in the capital of Wellington) - 고공 리플렛 캠페인

2007년 11월 5일 오후 1시, 경비행기를 타고 웰링턴 도심을 확산탄 모형 리플렛 3만장으로 ‘폭격’ 확산탄의 폭격 방식을 생생하게 재현, 그로 인한 사상자가 얼마나 끔찍하게 많은지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 리플렛에는 확산탄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청원서를 기록,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군축부장관(Hon. Phil Goff)에게 보낼 수 있도록 제작

웰링턴 시빅스퀘어(Civic Square)에서는

호주 사진기자이자 확산탄 전문가인 John Rodsted가 미디어(TV One, TV3 + a)와 인터뷰 진행

옥스팜 NZ(Oxfam NZ) 회원들은 광장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던 시민들에게 서명을 권유

34%의 리플렛이 서명되어 군축부장관에게 보내짐

리플렛은 DraftFCB가 디자인, 이스라엘(2006. 8)이 레비논 남부에 투하했던 M-85 모양으로 재생용지로 제작 핸드캡 인터넷서널에서 수집한 실제 확산탄 희생자의 이야기를 수록

### 2. 확산탄을 찾아주세요(Find the cluster bomb) - 신문 광고 캠페인

2007년 11월 28일, The New Zealand Herald(20만부 일간지)에 캠페인 광고를 게재

여러 면에 걸쳐 32개의 확산탄 그림을 배치

이는 확산탄의 작동 방식을 재현, 무차별적으로 시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 찾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는 아직 찾아야 하는 훨씬 많은 확산탄이 남아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배치

국제적 광고대행업체인 DraftFCB가 APN 대회(APN competition)에서 ‘독창적 신문지면 활용’ 부문 수상, 기념으로 ANZCMC에 무료 광고지면을 제공

\* DraftFCB는 ANZCMC에 프로보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3. 대중행동: 분필이 말하게 하라(Public Action: Let the Chalk Talk) - 대중 참여 라이다운(Lie-down)

2008년 2월 20일, 웰링턴 시빅스퀘어(Civic Square)에 쓰러진 확산탄 피해자들의 모습을 형상화

‘이곳에 만약 짐승탄이 떨어진다면,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  
광장에 자신이 쓰러져 누워있는 윤곽을 분필로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청원의 의미)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  
오후에 국회에서 확산탄 생존자 대표가 3,367장의 청원서를 군축부장관에게 제출  
포르투갈어, 태국어, 불어, 스페인어, 산스크리트어, 영어로 된 현수막 설치  
199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 ICBL)의 연설

#### 뉴질랜드와 짐승탄금지협약(CCM)

2007-2008 오슬로 프로세스(Oslo Process, 2008. 12. 3) 주도

\* 핵심 6개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페루

2008. 2. 18-22 웰링턴 회의 주재(106개국 참가)

2008. 12. 3 CCM 서명

2009. 12. 22 CCM 비준

2010. 8. 1 CCM 발효

[사례 연구]

## 벨기에, '내 돈,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My Money, Clear Conscience?' 캠페인

오리

### ㉠ 간단 역사

- 1982년, 벨기에 BRT TV 프로그램 'Ommekaar'에서 'Netzwerk Selbsthilfe Berline'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 Netzwerk Selbsthilfe는 Network Self Help(자립네트워크)라는 독일어로 1980년대 초반 독일을 휩쓴 대안운동 조직의 연합체를 가리키며 대안 낙농장, 농장, 유기농가게, 식당, 공동체, 식당, 출판사 등이 총 망라된 네트워크임. 이 프로그램 이후 벨기에의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 베를린 자립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됨. 방송은 비슷한 조직이 벨기에에도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끝남. 얼마 지나지 않아 벨기에 자립네트워크 네트워크 플란데런(Netwerk Zelfhulp Vlaanderen)이 설립됨.

- 처음 이 네트워크는 보조금 지원이 다 떨어졌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 환경 단체들에 대출과 기부를 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이들은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여를 하는 것이었고 벨기에 역사상 최초로 돈에 대한 다른 접근이 현실화 되는 활동이었음.

- 1990년, 벨기에 최초로 윤리적 금융기관이 문을 열. 네트워크가 설립한 ASLK 사무소가 그것임. 이 은행은 고객들의 돈 모두를 윤리적인 방식으로 투자함. 또한 은행에 의해 개발된 Krekelsparen과 같은 지속가능 상품도 있었음. 이 상품은 ASLK(나중에 Fortis 은행이 됨)과 네트워크 플란데런이 공동 제안하였고 사회, 환경 프로젝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사용됨.

- 자원활동가들의 역할도 막대했음. 그들은 신용거레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다루고 평가했으며 Krekelsparen을 홍보하였음.

- 네트워크 플란데런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논쟁 후, 1995년 총회에서 그 사이 크게 성장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기로 결정. 이후 네트워크는 사회에서 돈의 역할에 관한 비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운동이 됨.

### ㉠ '내 돈,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 2003년 네트워크는 무기 산업에 대한 은행의 투자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캠페인 자료들을 발간함. 캠페인 '내 돈,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는 연구 및 창의적 행동, 예술적 개입, 논쟁 및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함.

- 처음부터 이 캠페인은 무기제조자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평화단체들과 재정상의 연계 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윤리적 은행 감시단체들이 함께함.

- 캠페인은 재계가 무기들에 대한 투자에 책임이 있다는 것,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기업들을 폭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캠페인은 은행의 정책뿐만 아니라 은행 고객들의 역할 및 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캠페인은 은행 고객들, 은행, 그리고 정부를 그 행동의 목표로 하고 있음.

1) 은행 : 윤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아래와 같은 곳에 대한 투자를 멈출 것

- 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무기
- ② 독재자 혹은 무력분쟁을 비호하는 회사
- ③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야기하는 활동
- ④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회사

: 어떤 활동에 투자하는지에 관해 선명하고 투명할 것. 그래야만 고객과 정부가 이것을 모니터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투자 정책을 개발하고 (특히) 이행할 것.

2) 정부 : 아래와 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틀을 만들 것.

- ① 투자에 관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 ② 윤리적 투자를 격려할 것.
- ③ 금융 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 것 :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활동에 대해 투자하고 지속 불가능한 관행에 대한 지원을 끊을 것.

3)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 캠페인은 은행 고객들인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들이 움직여야 은행이 움직인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함. 은행은 고객들의 지원이 없이는 변화할 수 없다. 당신은 은행 고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다.

① 은행에 이메일 보내기 : 웹사이트(<http://www.banksecrets.be>)를 만들어 사람들이 한 눈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은행 투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음. 탄원서 쓰기 행동을 조직.

② 은행원들과 대화하기 : 은행 고객으로서 은행이 고객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 시민들로 하여금 은행에 실제로 방문해서 은행이 어떤 곳에 투자하고 있는지 은행원들에게 문의하는 행동을 조직.

③ 트레이닝이나 다큐멘터리 상영회 조직을 조직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체적으로 이를 조직할 것을 독려.

④ 지속가능한 은행 계좌를 열거나 지속가능한 은행상품을 구입할 것을 독려.

⑤ 2005년 캠페인은 무기 산업에의 투자뿐만 아니라 인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그 영역을 확장. ACE Bank는 이 운동의 국제적인 확산에 공헌함. 이 허구의 은행은 브뤼셀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친문화적인 이윤을 약속함. ACE Bank는 무기거래 혹은 환경파괴 회사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 완전히 투명했음. 얼마 동안 언론, 대중 및 재계조차 이 은행의 실재를 믿었음. 나중에 네트워크 플린데런은 이 프로젝트의 배후에 자신들이 있음을 실토했.

- 2007년 네트워크는 상호적인 웹사이트 [www.banksecrets.be](http://www.banksecrets.be)를 개설함. 이 사이트는 논쟁적인 돈의 흐름을 세계 지도에 연결시킴. ABN Amro, AXA, Citibank, Deutsche Bank, Dexia, ING, KBC와 같은 많은 문제적 투자들이 공론화 됨.

- 이를 통해, 캠페인은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한 성과를 획득하였음. 이는 좋은 연구, 로비, 행사 및 창의적인 행동들의

조화가 이뤄낸 결과. 아래는 캠페인이 이뤄낸 몇몇 성과들임.

- ① 목표였던 모든 은행들이 무기 제조사들에 대한 투자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
  - ② 확산탄 및 지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법률안 제정
  - ③ 모든 가입국들에 대해 이러한 투자를 금지하는 EU 결의안
  - ④ 더블린 조약 : 다른 나라가 투자자에 대한 압력가하고 자국에서 비슷한 법안을 입안하기 위한 기회가 됨.
- \* 벨기에 금융그룹인 KBC, 11개의 확산탄 제조업체를 그들의 투자목록에서 제외.
  - \* 2006년 4월, 브뤼셀 왕궁, 버마에 대한 투자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
  - \* KBC, 그들의 지속가능한 기금에서 벨기에 석유화학 그룹인 Total 제외.
  - \* 2007년 3월, 벨기에 정부,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 승인.
  - \* 2007년 3월, 프랑스에서는 앰네스티인터내셔널과 핸디캡인터내셔널이 악사(AXA)와의 관계를 끊음.
  - \* 2007년 4월, 네덜란드 연기금, 확산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함.
  - \* 2007년 5월, 벨기에 주요 정당인 Open VLD와 Groen이 사회적, 생태적, 윤리적인 기준이 정부 투자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천명.
  - \* 2007년 11월, 노동조합과 네트워크 플란테린이 힘을 합침.
  - \* 2007년 7월 악사는 지뢰 및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부분적으로 철회함.

- 현재 이 캠페인은 세계적인 도미노 효과라는 후속조치에 주력하고 있음. 스페인 BBVA 캠페인, 네덜란드 연기금 캠페인 등

- 성공의 비결 : 대중의 압력!

=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 광고비틀기(Adbusting), ACE Bank, 웹사이트, 순위매기기, 상징적 행동들 등